

익산시, 홀로그램 중심도시로 '도약'

정부 '5G 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선정 KTX 익산역에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 설치·운영키로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홀로그램 4차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한다.

특히 홀로그램 콘텐츠 사업 유치에 이어 정부의 '5G 기반 실감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는 등 홀로그램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시작한다.

익산시는 지난 17일 이춘석 국회의원과 협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5G 기반 실감콘텐츠 및 서

비스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패거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익산시는 5G 기반 다자간 홀로그램 영상통화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KTX 익산역에 최첨단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설치되면 상암(K-live),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그리고 익산 KTX 역사 간 5G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이 구축돼 다자간의 동시 콘텐츠

연출 환경이 마련된다.

이를 토대로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익산시의 홀로그램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익산시는 홀로그램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홀로그램 산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부터 사업비 300억원(국비 20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을 투입해 옛 마동주민센터를 활용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는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37종의 장비를 갖추고 소프트웨어 구축과 홀로그램

범용 콘텐츠를 확보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에 이어 '5G 기반 실감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앞선 홀로그램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관광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며 "개소 예정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의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기술 지원으로 본 사업의 결과물들이 다양해질 수 있어 시민들이 많은 홀로그램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익산 동산동 유원생태습지공원

'걷기 좋게 · 힐링하기 좋게'

익산시, 동산동 수로변 보행공간 개선 공사 현재 골조공사 추진 중 내달 말 공사 완료

동산동 유원생태습지공원과 주민센터 일원에 추진 중인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올 상반기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번 공사는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0억원(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투입됐으며 우남 아파트와 유원생태습지공원 간 대간선 수로변에 보행데크(L=770m, B=2.4m)와 인도(L=770m, B=2.4m)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실시설계용역과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돼 공사에 착수했고 기초공사 완료 후 현재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크와 난간설치 등의 공정이 마무리

되면 오는 6월까지 보행데크 구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보행단절 구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통행불편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피해예방 뿐 아니라 유원생태습지공원과 연계되는 힐링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사추진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변지역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교육

군산시가 점차 더워지는 여름철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위생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 관리 및 종사자들에게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천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수칙과 요령에 대해 식중독 예방전문가의 강의와 식중독의 이해, 발생 사례, 조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위생행정과장은 "식중독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 위생안전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갖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손님맞이 위생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직접 만들었어요"

용화기계 김효겸 대표이사 들개포획틀 군산시에 기증

군산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대표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안전 들개포획틀을 시에 기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야면에 소재한 용화기계 김효겸 대표이사가 들개 때문에 겪는 작물피해 등 주민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들개포획틀 2기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들개 포획틀 일명 '도그뺑'은 들개 개를 안으로 들어가 먹이를 당기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방식



군산시 대야면에 소재한 용화기계 김효겸 대표이사가 들개 때문에 겪는 작물피해 등 주민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들개 포획틀 2기를 제작해 전달했다.

으로 들개의 이동경로에 맞춰 신속히 운반 및 조립 설치가 가능하다.

군산시는 최근 경북 청도군, 전남 해남군 등에서 들개의 습격으로 인해 가축이 폐족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곳부터 들개 포획틀을 순차적으로 설치

할 예정이다.

김병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차적으로 포획틀을 설치해 안전하게 포획한 뒤 보호센터로 인계할 것"이며 "들개 발생 근본 원인인 반려견의 보호를 위해 동물등록제 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장점마을, 청정마을로 변화되나?

익산시, 행정절차 본격 착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장점마을을 청정마을로 변화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마을 비료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부지를 매입한 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지 내 매립된 폐기물로부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대집행으로 신속히 처리 한 후 행위자인 비료공장에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15일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실태조사와 처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비료공장 폐기물과 토양오염 분석 결과 모두 법적기준 이하로 검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군산대학교 김강주 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폐기물 종류는 일반폐기물로 밝혀졌고 토양 분석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며 추정 매립량은 1,444㎡로 조사됐다.

특히 토양오염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일반 기준보다 더 높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소(As)는 최대값 38.56mg/kg

이 검출되었으나 비료공장의 법적기준인 토양오염우려기준 3지역 기준(200mg/kg)은 초과하지는 않았다.

시는 공장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장점마을 환경요양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주민건강검진 및 환경오염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보건소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광대병원과 협의를 통해 장점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장고재, 월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9대 암 등 연1회(90만원 상당) 건강검진과 암 및 피부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 300만원/년도 5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익산시 녹색환경과장은 "장점마을 비료공장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 또한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며 "비료공장 부지를 최종적으로 환경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장점마을에 대한 오명을 지우고 청정한 시골마을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어려운 아동 가정들에게 이웃사랑 실천

GS칼텍스 군산물류센터, 드림스타트 대상에 가구 지원

GS칼텍스 군산물류센터(센터장 민경국)가 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가정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물류센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군산시드림스타트 대상아동 가정에 도배장판 및 가구 등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게 된 드림스타트 가정은 한부모 모자 가정으로 집 전체에 퍼진 곰팡이로 인해 천식, 비염 등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도배와 장판이 낡아 교체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산물류센터 임직원 10여명은 도배, 장판 교체작업과 가구와 싱크대 등을 교체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 재무·회계 역량교육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관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단체 예산회계담당자 대상으로 재무·회계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과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분야 특별교육은 예산서, 결산서 작성 방법, 보조금 집행방법을 설명하고 안내해 부적절한 업무처리예방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마련했으며 보조금 외에 소홀히 하기 쉬운 후원금 및 사업수익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편리한 예산산서 작성을 위해 직접 만든 서식(안)을 배포하기도 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부서 담당자들은 장애인 단체와 노인 복지시설들에 회계 운영에 대한 이해와 예산서·결산서 작성을 돕기 위한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은 물론 후원금, 사업수익 등 재무·회계 업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